

농민·소비자 윈윈 '희색'...골목상권 매출 타격 '울상'

로컬푸드 직매장 명암

도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급증하는 원인은 유통 단계를 줄여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하루 총 매출이 10만원에 머물고 있고, 일부 농민들도 '하루 판매 후 남은 농산물 폐기' 원칙에 부담을 느끼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한 지역에서 농식품을 생산·가공·유통·소비·음식폐기물처리까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푸드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웃는다=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명 매장은 주말마다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섰 정도로 장사가 잘 되면서 로컬푸드가 농

유명 매장 주말마다 장사진... 일부는 하루 매출 10만원 안돼

'남은 농산물 폐기' 부담 탈게 생산·유통 '푸드 플랜' 수립을

백화점·대형마트도 직거래로 단가 낮추며 가세...경쟁 치열

민의 소득을 늘리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미래농업의 한 가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 등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61개소의 운영실태 및 생산자·소비자 조사 결과, 직매장의 80% 이상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경제에 가져온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대도시 인근 직매장은 연간 10억3000만원, 중소도시 인근 직매장은 7억4000만원, 농촌지역 직매장은 4억7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앞다투어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도시민에게 로컬푸드가 더욱 잘 팔리는 덕분이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로컬푸드는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소비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지역농업의 결정체"라며 "지역

발 사업과 연계해 생산자의 조직화와 실무 역량 강화, 소규모 농산가공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 재편, 나아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장 수 늘리는 것보다 내실 갖춰야=로컬푸드 직매장이 늘다 보니 '잘 되는 곳과 그렇지 못하는 곳'의 차이도 명확해지고 있다.

광주지역 11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6억5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곳도 있지만 1800만원에 불과에 그친 곳도 있다. 하루 매출로 나누면, 1일 평균 10만원이치도 팔지 못해 문을 닫은 곳도 있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다 보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곳에 납품을 하는 농민들도 늘고 장사가 되지 않는 직매장은 출하 농가의 수

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농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임시 영업을 시작한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금치 등 업체류는 생산된 지 하루, 양배추·애호박 등은 이틀, 감자와 구마 등 뿌리채소는 3일 이내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마케팅이지만 당일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은 지역 사회시설에 기증하고, 그 부담은 농민에게 돌아간다.

이곳에 업체류를 납품하는 남구 대촌동의 한 농민은 "임시 영업 초기에는 납품한 농산물을 전체가 팔려 큰 도움이 됐지만 장사가 되지 않는 날은 납품한 상품 절반 가량을 사회시설에 기증하기도 했다"면서 "봉사를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판매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결국 로컬푸드 직매장이 납품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로컬푸드와의 가격 경쟁도 문제다. 최근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확 전 매대 계약을 체결해 판매 단가를 낮추고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로컬푸드 거점가공센터 등을 세워 농수산물을 공평 구입하고 가공해 각지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급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북 완주 로컬푸드 거점가공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로컬푸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있다. /오광욱기자 krah@

싱싱한 먹거리 찾는 인파...오전부터 생동감 넘쳐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가보니

대촌·나주·화순 농가 300곳
농축산·가공품 445종 선배
수박 1통 시중보다 5천원 저렴
인근 매장 상생 위해 품목 제한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픈한 남구시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은 21일 오전 일찍부터 생동감이 넘쳤다.

100평(330㎡)쯤 되는 매장 안에는 남구 대촌동과 화순군, 나주시에서 막 수확한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을 가져와 진열하는 농민들, 장보러 나온 인근 주민들로 북적였다.

진열된 농산물, 밀가루, 과자, 라면, 벌꿀, 두부, 가시오가피, 열무, 계란, 심지어 우유·요구르트 등 먹을거리 상품 모두 흠에서 막 솟구쳐나온 듯 싱싱해보였다. 상품마다 '열무 1kg 2200원, 주사 나주시 남평읍 광촌정광김, 생산자 김봉복', '가시오가피 200g 6500원, 화순군 용회로, 생산자 이복남'이라는 식으로 생산자, 원산지까지 적혀있었다.

주부들은 800~2500원씩 깔끔하게 소포장된 채소를 망설임 없이 바구니에 담았다. 여름철 인기 상품인 수박의 경우 일반마트보다 5000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돼 무거운 수박을 사가는 고객들 얼굴에는 하갈이 웃음기가 어려 없었다.

생산자들 표정도 밝았다. 승촌동(대촌)에서 양배추를 가져온 송은근(51), 한국우리밀농협협동조합(광산) 상부 김태완씨 등 생산자들 모두 상품 진열하며 고객 응대에 열성적이었다.

매장에서 만난 백효순(여·53·승촌동)



21일 남구시 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 부지에 문을 연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민들이 남구 승촌동, 나주시, 화순군 등 인근에서 생산된 진열대에 오른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씨는 "갯잎만 내놓았는데 하루 매출은 4~5만원 정도다. 아직은 보잘것없는 매출이지만 입소문이 나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납품농가 모두 농사를 정직하게 지었고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스러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이곳의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백씨의 말처럼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로컬푸드매장의 장점이다.

갯잎을 예로 들면, 10장짜리 1봉지를 40개 넣은 한 상자를 새벽 공판장에 내놓으

면 요즘 낙찰가는 1만4000원 수준. 봉지당 350원짜리 갯잎 한 봉지는 공판장 중도매인에게 넘겨졌다가 시중 마트로 팔려가 매장에 진열되면 1000원까지 오른다. 중간 유통과정에서 750원이 붙는 것이다. 하지만, 로컬푸드매장에서 팔리는 갯잎도 봉지당 800원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봉가 입장에서 3200원(1상자 40봉지)을 팔 수 있다. 농가들이 적은 매출에도 재고 부담을 안고 로컬푸드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구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매장과 인접

한 대촌동, 나주·화순지역 농가 300여 곳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축산물·가공품 445종이 선보이고 있다. 인근 중소마트와의 상생을 위해 협약을 맺고 매장 운영시간(오후 8시), 일정 품목을 제한했다. 축산코너는 월 2일 의무휴업한다. 포인트카드 발급, 홍보전단 배포는 없기로 하고, 매출액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23일간 매출은 2억7000만원(하루 평균 1180만원), 하루 방문객 수는 530명으로 집계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해달라"

6개 특별·광역시 권의...광주시 지난해 76억 손실

광주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특별·광역시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재정난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자연합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가 철도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손실분의 50~60%를 지원하면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

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기 때문에 도입 주체는 정부이며 손실 역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는 20년간 풀리지 않고 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8395억원의 손실을 냈고, 이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6%를 차지했다.

광주도시철도의 경우 지난 2011년 62억원 수준이던 무임승차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 2012년부터는 매년 7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액이 76억원이고, 승차차 비율이 31.6%를 기록, 전국 평균인 1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헌법소원을 낼 계획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한국 방문객 씬이 중동 '큰손'·일본 '짠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중동인들의 씬이 가장 컸던 반면 일본인은 최고의 '짠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1만2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중동 외국인들의 1인당 국내 지출 여행 경비

가 2593.8달러로 집계돼 다른 여행객들 대비 가장 많았다.

이를 지난 20일 현재 원화로 계산하면 294만9000원. 반면 일본인의 1인당 지출 경비는 813.9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000달러를 밑돌았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승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9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번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야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료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상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상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상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복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단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탐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력의 노하우 **올레탐공인중개사** 가성후·가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2017년도 한국전력전우회 섬사랑 장학생 선발공고

한국전력전우회에서는 나눔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주)케이비씨(구 전우실업)의 발전사업소가 있는 섬지역 우수학생을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장학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제2기 장학학생을 선발함을 공고합니다.

1. 장학생 선발요강

- ◆대상지역: (주)케이비씨의 65개 도서발전사업소가 있는 16개 지자체 (시·군) - 인천 옹진군, 경기 안산시, 충남 태안군·보령시, 전북 군산시·부안군, 전남 영광군·신안군·진도군·완도군·고흥군·여수시,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 *대상 도서(서)는 한국전력 홈페이지 www.obkpc.co.kr 선발공고상시 발표 #1 참조
- ◆대상학생: 대학(전문대학 포함) 1·2·3학년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 *한국전력공사 및 (주)케이비씨 직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 ◆선발인원: 연간 100명 (시·군별로 선발)
- ◆장학금액: 연간 3억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씩 분할지급)
- ◆선발순위 ('공고일 현재' 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 필요)
 - 1순위: (주)케이비씨의 발전사업소가 속한 65개 도시에 '실거주' 하는 주민 또는 직계비속
 - 2순위: 16개 지자체(시·군)에 '실거주' 하는 주민 또는 직계비속

2. 장학생 선발절차

- ◆지역 장학생 추천위원회(한전, 지자체, (주)케이비씨(대표발선소)에서 심사·평가 후 한국전력회사 장학위원회에서 확정
- ◆선발결과 안내: '17. 7. 2(금)까지 개별 통보 및 한국전력회 홈페이지 공지
- ◆장학증서 수여식: '17. 8. 2(월), 장소 추후 공지 (교통비 및 숙박 등 실비 지급)
- *장학증서 수여식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 *상기 일정에 사정이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17. 6. 22 (목) 09:00 ~ '17. 7. 9 (일) 24:00 까지
- ◆접수처 및 제출방법: 해당 지역 한전지사(또는 본부)로 e-mail 접수
- *상세내용은 한국전력회 홈페이지 www.obkpc.co.kr 선발공고 참조

4. 문 의 ☎ 02)3702-0853~1

사단법인 한국전력전우회